



미 증시, ISM 제조업 부진에도,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

미국 증시 리뷰

1 일(월) 미국 증시는 프랑스 선거,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 등 정치 불확실성 확대 및 시장금리 상승에도 ISM 제조업지수 부진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다우 +0.13%, S&P500 +0.27%, 나스닥 +0.83%) 업종별로 IT(+1.3%), 경기소비재(+0.7%), 금융(+0.2%) 강세, 소재(-1.5%), 산업재(-1.1%), 부동산(-1%)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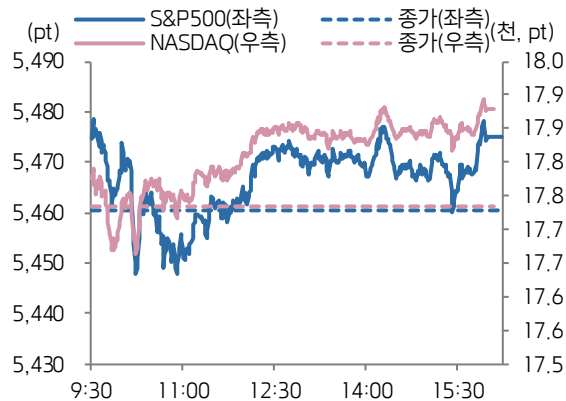
6 월 ISM 제조업지수는 48.5(예상 49.1, 전월 48.7) 기록하며 3 개월 연속 50 선 하회. 고용 지수는 전월 51.1 에서 49.3, 물가지수 57.0에서 52.1 로 하락. 반면 신규 주문 지수는 45.4에서 49.3으로 상승.

6 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는 51.6(예상 51.7, 전월 51.3)로 전월 대비 상승. 집계측은 "PMI 는 올해 첫 6 개월 중 5 개월을 낙관적인 영역에 있었지만, 성장 동력은 여전히 약하다"고 평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나갔다고 확신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며 18 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동결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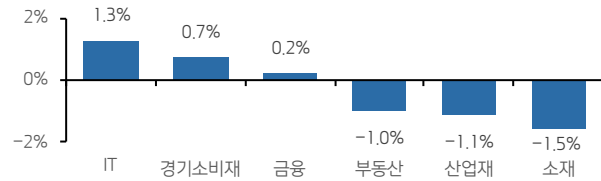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도 연합과 좌파인 신민중전선이 르펜의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집권을 막기 위해 연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프랑스 증시가 반등하고 유로화 상승. 극우 국민연합은 프랑스 정부 재정에서 막대한 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약해 국채금리 하락 및 시장 불안 확대된 바 있음. 전날 실시된 프랑스 총선 1 차 투표에서 국민연합이 1 차 투표에서 33.2%의 득표율로 1 위를 기록했으나 과반수 미달. 신민중전선은 28%, 마크롱 연합은 20.8%를 얻으며 함께 지지율은 국민연합을 넘어섬.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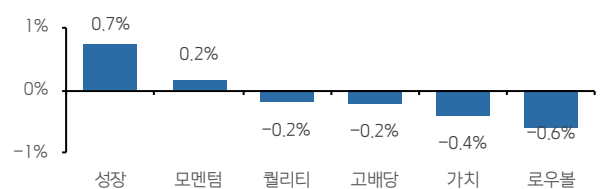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804.31	+0.23%	USD/KRW	1,383.67	+0.52%
코스피 200	384.34	+0.08%	달러 지수	105.90	+0.03%
코스닥	847.15	+0.8%	EUR/USD	1.07	+0%
코스닥 150	1,384.35	+1.68%	USD/CNH	7.30	-0.01%
S&P500	5,475.09	+0.27%	USD/JPY	161.45	-0.01%
NASDAQ	17,879.30	+0.83%	채권시장		
다우	39,169.52	+0.13%	국고채 3년	3.207	+3bp
VIX	12.22	-1.77%	국고채 10년	3.307	+4.7bp
러셀 2000	2,030.07	-0.86%	미국 국채 2년	4.756	+0.2bp
필라. 반도체	5,477.15	+0.09%	미국 국채 10년	4.461	+6.5bp
다우 운송	15,298.25	-0.76%	미국 국채 30년	4.624	+6.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29.99	+0.73%	WTI	83.45	+0.08%
MSCI 전세계 지수	803.77	+0.22%	브렌트유	86.6	+0.22%
MSCI DM 지수	3,519.95	+0.23%	금	2341	+0.09%
MSCI EM 지수	1,087.38	+0.1%	은	29.3	+0.22%
MSCI 한국 ETF	66.12	+0.05%	구리	442.5	-0.0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5%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2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81.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금리 상승에도, 주요 AI 주 강세, 지표 개선 등으로 인한 위험선호심리 지속 가능성 2. 전일 약세를 연출한 국내 수출주들의 ISM 제조업 신규주문 개선을 반영하며 반응할 지 여부 3. 전일 동반 급등한 국내 이차전지들의 추가 모멘텀 지속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6 월 초 중순 경, 5 월 ISM 제조업 PMI 쇼크로 경기 하드랜딩 및 금리인하 시 증시 급락 가능성이 제기됐던 시기가 있었음. 그 가운데, 전일 발표된 6 월 ISM 제조업 PMI 도 48.5 를 기록하며 전월(48.7) 및 컨센(49.2)를 하회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

그렇지만 ISM 제조업 PMI 내 선행지표인 신규주문이 49.1 로 전월(45.4) 및 컨센(49.0)을 상회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미국 내 실수요는 견조한 상태라고 판단. 인플레이션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ISM 물가 지수(52.1 vs 컨센 55.8)가 둔화됐다는 점도 차주 11 일 발표 예정인 6 월 CPI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

물론 이 같은 상황에도 트럼프 당선 리스크 선반영 등으로 미국 10 년물 금리가 4.4%대로 올라섰다는 점은 시장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음. 하지만 이달에는 실적시즌이 진행되는 만큼, 지난 4 월처럼 4.6%대 레벨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2 분기 모멘텀이 주식시장에서 금리 부담을 상쇄시켜줄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 속 미국 금리 상승 등이 반도체, 자동차 수출주를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가했으나, 바이오, 이차전지, 저 PBR 등 최근 소외 업종들이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코스피가 2,800pt 를 회복(코스피 +0.2%, 코스닥 +0.8%).

금일에도 트럼프 당선 불확실성 등에서 기인한 미국 금리 상승에도, 엔비디아(+0.6%), 애플(+2.9%) 등 주요 AI 주 상승, 미 ISM 신규주문 호조에 따른 실적시즌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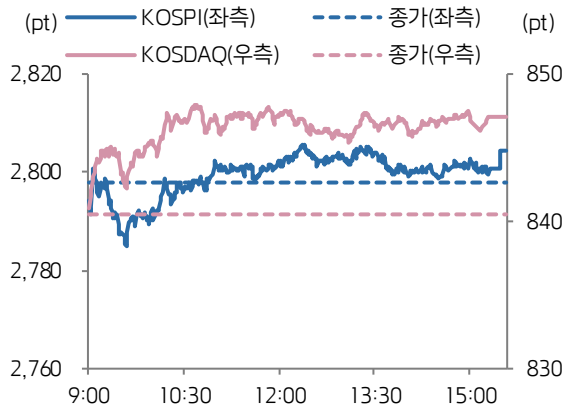
전일 트럼프 피해주이자 업황 부진 전망이 우세했던 이차전지 업종이 추가 메리트 확대, 수급 빈집 인식 등으로 동반 급등세를 연출한 가운데, 금일에도 2 분기 인도량 기대감으로 테슬라(+6.1%)가 강세를 보인 만큼 금일에도 추가 모멘텀이 이어갈지 여부도 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될 전망.

한편, 전일 국내 주력 수출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으나, 이는 펀더멘탈, 이익 전망 악화에서 기인한 것이기 보다는 6 월 이후 강세에 따른 차익실현 성격이 더 짙다고 판단. 실제로, 6 월 수출은 5.1%(YoY)로 전월(11.5%) 및 컨센서스의 중간 범위(블룸버그 4.4%~인베스팅 6.3%)에 그치는 수치를 기록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나쁘지 않았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2.4%(YoY)로 전월(9.0%)에 비해 확대됐다는 점이나, 무역수지가 13 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현재의 고환율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켜줬다는 점이 대표 사례.

품목별로도 AI 전방수요 확대,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 SSD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YoY, 5 월 +54.5% →) 6 월 50.9%), 디스플레이(+15.8% →) +16.1%), 컴퓨터(+48.5% →) +58.8%) 등 주력 IT 업종 수출이 견조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 수출 대장주인 자동차의 경우, 6 월에 -0.4%로 5 월(+4.8%)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조업일수 감소 영향을 감안하면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 수출의 선행지표인 미국 ISM 제조업 신규주문이 큰 폭 반등했다는 점도 향후 수출 피크아웃 우려를 덜어낼 줄 수 있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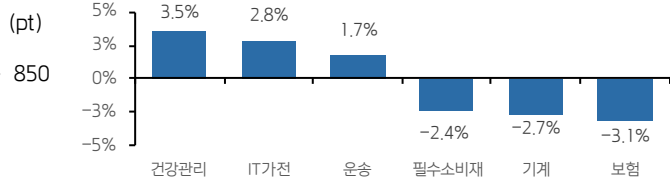
여기서 코스피가 2,800pt 이라는 상징적인 레벨에 다시 도달한 만큼,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점 부담을 느낄 수 있기는 함. 그러나 현재 코스피 12 개월 선행 PER 이 현재 9.78 배로 과거 같은 추가 레벨대('20 년 12 월 당시 13.1 배 내외, '22 년 1 월 당시 PER 10.5 배 내외)에 비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현 코스피 지수 레벨에 대한 심리적인 허들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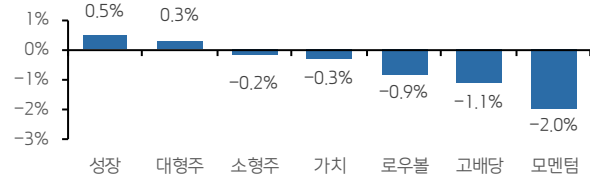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